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Utilization Status and Policy Tasks

윤상웅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의 특징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경제적 자립과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착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공적 장애인복지지출은 2000년 0.4%, 2005년 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이듬해인 2006년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 연도인 2014년까지 약 10년간은 0.6%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적 장애인복지지출의 증가는 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의 현금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개인별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

스의 확대가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 체감도와 개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 조사에서 복지서비스 영역을 따로 구성하여 조사해 왔다. 2017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및 2011년 조사 문항과 거의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추정 장애인의 장애 등록률, 장애 등록 후 복지 체감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경험과 이용 희망, 마지막으로 국가 및 사회에 바라는 복지 욕구 등을 중심으로 2017년 조사 결과와 2014년, 2011년 등 지난 2회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갖는 시사점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 등록 현황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으로 추정된 사람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추정 장애인의 97.3%가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¹⁾ 이는 2014년에 비해서는 2.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11년보다는 0.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장애 등록률이 95%를 상회한 상태에서 최근 세 번의 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본조사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등록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8~1989년에는 전체의 2.0%만이 등록하였으며, 1990~1995년에는 전체의 3.7%가

표 1. 장애인 등록률 추이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2017년	98.5	96.1	96.2	95.3	99.3	98.7	100.0	96.4	95.9	89.2	84.3	100.0	84.5	92.7	86.2	97.3
2014년	96.7	95.9	92.9	91.9	88.8	96.5	100.0	92.1	93.8	81.9	84.7	83.3	100.0	89.2	88.7	95.1
2011년	97.7	96.4	96.6	93.2	87.6	99.2	97.3	96.1	96.8	69.5	89.4	87.4	100.0	80.9	82.9	96.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1) 장애인 실태조사의 목적 중 하나는 전체 국민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임. 이들 추정 장애인이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장애 등록을 했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추정 장애인의 장애 등록률을 파악하고 있음.

표 2. 장애 등록 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988~1989년	2.2	1.3	1.3	3.1	7.1	2.6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
1990~1995년	5.4	1.0	2.6	2.0	1.6	5.1	0.0	0.0	0.0	0.0	0.0	0.0	0.0	0.0	0.0	3.7
1996~2000년	16.4	9.5	15.7	8.2	4.9	12.0	11.7	10.2	9.6	15.6	0.0	0.0	0.0	0.0	6.7	13.5
2001~2005년	27.3	22.8	26.7	22.2	17.7	18.6	20.9	14.6	11.5	46.3	14.6	6.1	60.9	25.9	24.3	24.3
2006~2010년	33.2	25.3	28.9	26.4	33.6	22.1	6.7	29.3	19.1	20.5	33.0	35.4	21.0	12.0	16.9	29.2
2011~2015년	11.1	25.3	17.7	16.8	14.0	25.8	40.6	33.6	31.8	12.4	22.1	33.5	10.6	41.1	16.1	17.2
2016~2017년	4.4	14.8	7.1	21.2	21.0	13.8	20.1	12.3	27.9	5.2	30.3	25.0	7.4	21.0	36.0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242,206	275,418	252,462	268,998	20,553	194,695	22,971	99,923	80,154	5,507	11,831	11,042	2,680	14,404	8,207	2,511,051

주: 등록 장애인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등록하였다. 이후 1996~2000년에는 13.5%, 2001~2005년에는 24.3%가 등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 시기 1, 2단계에 걸친 장애 범주 확대와 장애인용 LGP 차량 지원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2006~2010년에 전체의 29.2%에 달하는 장애인이 새로 등록된 데는 장애수당 확대와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서비스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2000년 전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신규 장애 등록은 2011~2015년에 17.2%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추정 장애인의 장애 등록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 2차 장애 범주 확대에 현재의 15개 장애 유형으로 확정된 2003년 이후 장애 범주 확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을 파악한 결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54.3%로 가장 높아 장애 등록의 혜택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또는 약간 받고 있다’가 전체의 35.8%인 반면, ‘전혀 또는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64.2%로 3분의 2 정도는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세 번의 조사에서 장애 등록 이후 복지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은 2011년 37.6%에서 2014년, 2017년에는 3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많음	1.3	2.6	2.1	1.2	5.7	4.7	0.0	12.1	8.0	6.1	8.5	3.8	0.0	0.0	0.0	2.5
약간 받고 있음	27.0	38.1	25.2	34.7	47.1	55.7	59.8	45.5	54.9	35.5	31.9	35.6	50.6	30.1	29.2	33.3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60.3	51.8	57.5	55.6	37.5	35.3	40.2	39.9	31.1	46.2	49.1	42.0	38.8	60.0	54.3	54.3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11.4	7.5	15.2	8.5	9.6	4.4	0.0	2.5	6.0	12.2	10.6	18.5	10.6	9.9	16.6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242,206	275,418	252,462	268,998	20,553	194,695	22,971	99,923	80,154	5,507	11,831	11,042	2,680	14,404	8,207	2,511,051

주: 등록 장애인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4. 장애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추이

(단위: %)

구분	만족하는 편	불만족한 편	전체
2017년	35.8	64.2	100.0
2014년	35.8	64.2	100.0
2011년	37.6	62.4	100.0

주: '만족하는 편'은 '매우 많음'과 '약간 받고 있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수치이며, '불만족한 편'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이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서비스 미수급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복지 확대에 비례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 역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등록해도 별 소

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2%,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17.0%,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장애 등록 안내 및 장애인복지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원인이 최근 세 번의 조사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와 '남에게

표 5.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27.6	32.1	45.2	26.5	0.0	23.6	-	14.2	24.5	-	100.0	-	0.0	0.0	100.0	31.2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3.9	25.2	5.6	19.8	100.0	0.0	-	25.9	0.0	-	0.0	-	0.0	12.9	0.0	18.2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2.8	6.1	20.9	14.1	0.0	0.0	-	0.0	0.0	-	0.0	-	0.0	0.0	0.0	8.1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	22.4	9.6	5.4	30.6	0.0	25.6	-	6.5	0.0	-	0.0	-	0.0	0.0	0.0	17.0
장애인이란 생각 하지 않아서	3.1	6.1	3.3	0.0	0.0	0.0	-	17.1	0.0	-	0.0	-	100.0	0.0	0.0	4.3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6.5	13.5	15.5	1.6	0.0	38.8	-	36.3	0.0	-	0.0	-	0.0	0.0	0.0	10.4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서	8.1	7.4	4.1	7.3	0.0	0.0	-	0.0	0.0	-	0.0	-	0.0	0.0	0.0	5.8
앞으로 장애 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	-	-	-	-	-	-	-	-	-	-	-	-	-	-	-
기타	5.6	0.0	0.0	0.0	0.0	12.0	-	0.0	75.5	-	0.0	-	0.0	87.1	0.0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7,043	8,137	8,785	12,231	147	2,075	-	3,506	925	-	1,101	-	493	1,138	714	56,29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6.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원인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4년	2011년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1.2	34.3	32.7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2	21.2	12.2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	17.0	13.5	5.0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0.4	10.0	14.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의 응답 비중은 줄어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의 응답 비중은 오히려 든 반면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신

규 장애인복지서비스 도입이 부진하고 장애 등록 심사 업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이전에 비해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장애인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해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 지원, 돌봄 지원, 세제 혜택, 공공요금 관련, 일자리 및 용자, 기타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금·수당 등의 직접적 현금급여의 경우 경증 장애수당 이용률이 전체의 1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연금 11.7%, 장애아동수당 1.7%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 영역에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2.5%, 장애아 보육료 지원 1.6%의 이용률을 보였다.

의료 및 재활 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 사업 이용률이 1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 의료비 지원 6.2%,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교부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지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2%, 장애인생활도우미 1.2%의 이용률을 보였다.

세제 혜택 영역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적 자격 요건으로 인해 타 복지사업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세금 공제 및 면제 혜택을 경험한 장애인이 49.2%, 승용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혜택을 경험한 장애인이 25.9%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관련 영역에서는 통신 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이용률이 85.4%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교통 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및 할인 이용률은 각각 75.8%, 65.7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및 용자 영역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3.6%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가 0.4%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영역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3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5.7%, 주택 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서비스 대상 인구와 소요 예산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3개 현금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등 3개 현금급여의 이용률이 최근 세 번의 조사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핵심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 대상과 지급액(급여량)을 증가시켜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연금·수당																
장애인연금	3.6	20.0	9.1	9.8	4.7	33.9	28.7	26.0	47.7	6.1	17.2	6.3	0.0	1.7	8.1	11.7
경증장애수당	13.3	17.4	12.6	11.2	31.8	18.8	3.2	45.1	6.1	25.5	9.2	17.3	24.5	11.6	35.3	15.1
장애아동수당	0.2	2.3	0.4	0.6	12.2	13.3	10.0	0.5	0.0	0.0	0.0	0.0	0.0	0.0	0.0	1.7
보육·교육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0.9	2.7	1.2	1.7	16.8	14.3	21.8	1.4	0.4	0.0	0.0	0.0	8.7	0.0	0.0	2.5
장애아 보육료 지원	0.1	2.7	1.0	0.6	6.4	9.4	31.8	0.0	0.0	0.0	0.0	0.0	0.0	0.0	0.0	1.6
아동양육수당	0.2	1.1	0.7	0.7	0.0	2.4	11.8	0.0	0.0	0.0	0.0	0.0	0.0	0.0	0.0	0.6
의료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4.0	8.7	4.9	4.7	7.2	12.8	9.7	15.9	12.0	8.2	5.9	1.7	0.0	3.1	6.8	6.2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1.9	5.3	2.5	2.7	11.3	10.8	0.9	11.8	10.6	0.0	2.4	4.9	1.5	1.7	3.7	3.9
장애검사비 지원	1.4	6.2	2.5	2.6	9.8	9.7	7.6	14.4	9.0	0.0	2.9	4.9	0.0	1.7	3.7	3.8
발달재활서비스	0.1	4.2	0.2	0.2	23.4	20.4	65.8	0.4	0.0	0.0	0.0	0.0	0.0	0.0	0.0	2.9
언어발달 지원	0.0	1.3	0.0	1.3	16.2	8.1	27.8	0.0	0.0	0.0	0.0	0.0	0.0	0.0	0.0	1.3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교부	3.9	13.3	4.2	7.6	0.0	1.4	4.5	0.0	5.1	0.0	14.4	1.7	0.0	15.8	0.9	5.1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8.8	25.9	9.5	48.4	7.6	2.9	0.0	0.3	10.4	0.7	50.1	0.5	0.0	46.1	0.0	14.6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0.1	0.1	0.0	0.0	0.0	0.5	0.0	0.5	0.0	0.0	0.0	0.0	0.0	0.0	10.2	0.2
돌봄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0.9	7.5	3.5	0.1	4.0	15.4	22.9	1.7	1.8	0.0	4.1	0.0	0.0	0.0	0.0	3.2
장애인생활 도우미	0.6	1.3	1.2	1.4	5.7	3.3	2.9	0.6	2.5	0.0	2.8	0.7	0.0	0.0	7.4	1.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0.0	0.2	0.0	0.0	0.0	0.3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족 휴식 지원	0.0	0.0	0.0	0.0	0.0	0.8	5.2	0.0	0.0	0.0	0.0	0.0	0.0	0.0	0.0	0.1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0.0	0.0	0.0	0.0	0.0	3.4	15.7	0.0	0.0	0.0	0.0	0.0	0.0	0.0	0.0	0.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활동비용 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세제 혜택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2.3	36.0	14.3	19.1	36.9	42.8	81.6	24.6	46.5	53.0	44.0	17.0	53.5	15.7	19.3	25.9
세금 공제 및 면제	51.4	45.1	48.6	44.3	52.9	50.1	65.3	37.6	58.2	53.8	51.0	52.1	59.9	35.5	39.7	49.2

(표 7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공공요금 관련																
교통 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8.0	72.9	75.3	70.4	75.1	72.3	87.7	73.8	81.5	90.0	69.2	89.9	75.5	72.4	62.4	75.8
통신 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88.6	81.0	86.2	83.6	90.0	76.1	71.3	83.2	88.2	96.8	75.4	86.1	75.5	74.8	72.5	85.4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및 할인	65.6	63.9	58.5	61.9	57.4	76.6	84.9	68.6	81.1	86.9	61.1	76.2	56.7	54.6	41.7	65.7
일자리 및 용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2	2.7	2.8	0.9	4.2	16.2	9.8	8.1	3.7	0.0	0.5	0.0	23.9	0.0	1.7	3.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0.4	0.4	0.5	0.2	0.0	0.8	0.0	0.0	0.9	0.0	0.0	0.0	0.0	0.0	0.0	0.4
기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42.8	41.5	32.7	27.4	30.4	36.5	85.2	18.3	48.6	53.0	38.7	43.3	40.4	33.5	23.8	38.8
주택 관련 분양 우선 및 가산점 부여	4.0	6.7	2.9	3.0	3.5	7.0	7.5	11.0	6.0	0.0	4.8	2.0	8.7	0.0	7.3	4.7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0.0	0.4	0.3	0.2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노인장기 요양보험	4.1	18.9	6.1	4.9	3.8	1.1	0.0	2.0	5.4	0.0	10.6	0.0	0.0	1.7	2.3	5.7
전국 추정 수	1,261,555	286,600	262,381	282,255	20,700	197,182	22,972	103,628	83,583	6,174	14,033	11,042	3,173	15,542	9,520	2,580,340

주: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8.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4년	2011년
장애인연금	11.7	11.3	11.3
경증장애수당	15.1	15.5	14.6
장애아동수당	1.7	1.3	1.4
발달재활서비스	2.9	3.6	2.0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14.6	12.5	1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2	2.9	2.9

주: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4.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취득 방법

장애인들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정보 매

체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친척·친구·이웃 (28.1%), 행정기관(13.4%), 사회복지 관련 기관 (6.7%) 등도 주요 정보 제공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취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정보 매체	49.9	39.3	50.4	39.3	43.9	30.1	33.2	42.2	53.5	62.0	49.6	69.3	71.8	57.8	48.8	45.9
친척, 친구, 이웃	29.2	27.5	27.0	35.6	20.6	25.0	22.8	24.0	13.4	8.4	23.5	7.7	10.4	23.5	21.5	28.1
장애인 동료	1.2	2.1	2.5	2.4	2.9	2.2	10.7	4.1	3.9	0.0	0.0	2.0	1.5	0.8	0.0	1.9
행정기관	11.9	17.9	11.0	13.1	18.4	16.3	5.3	11.9	21.9	12.7	18.6	16.2	8.9	7.9	27.9	13.4
사회복지 관련 기관	4.3	9.0	6.3	5.5	14.1	18.9	13.2	12.5	3.5	11.5	5.5	0.5	1.6	3.4	0.0	6.7
장애인단체	0.9	1.8	1.6	1.8	0.0	2.5	8.9	0.8	2.3	0.0	0.5	0.0	0.0	0.4	0.0	1.4
종교기관	0.5	0.0	0.0	0.4	0.0	0.4	0.0	2.5	0.5	5.4	0.0	1.8	0.0	0.0	0.2	0.5
교육기관	0.2	0.4	0.4	0.2	0.0	1.9	1.4	0.0	0.0	0.0	0.0	0.0	0.0	0.0	0.0	0.3
복지 관련 정보지	1.3	1.0	0.8	1.4	0.0	2.4	4.3	1.4	0.9	0.0	0.5	2.5	5.8	2.0	1.7	1.3
기타	0.7	1.0	0.0	0.3	0.0	0.2	0.0	0.6	0.1	0.0	1.8	0.0	0.0	4.3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261,555	286,600	262,381	282,255	20,700	197,182	22,972	103,628	83,583	6,174	14,033	11,042	3,173	15,542	9,520	2,580,34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지난 두 번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정보 매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행정기관과 친척·친구·이웃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히 정보 매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이전 조사와 비교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한 복지사업 안내에 주력함과

더불어 공식적인 정보원으로서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표 10. 장애인복지서비스 주요 정보 취득원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4년	2011년
정보 매체	45.9	42.2	37.2
친척, 친구, 이웃	28.1	28.3	29.6
행정기관	13.4	15.9	20.1
사회복지 관련 기관	6.7	7.1	5.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률을 살펴 보았다. 총 23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전체의 10.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5.3%, 직업재활시설 3.4%, 장애인단체 3.3%, 장애인체육시설 2.2% 등의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직전 조사인 2014년과 비교할 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률이 약간 상승하였고, 동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최근에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희망률의 경우 지적장애 인지립지원센터 58.3%,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50.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5.4%,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3.2%, 정신재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41.9% 등의 순으로 이용 희망률이 높았다.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신재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희망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신체적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희망률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의 비율이 높은 정신적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신체장애인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여가,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4년	
	이용률	이용 희망률	이용률	이용 희망률
직업재활시설	3.4	12.3	3.0	10.9
장애인복지관(단종복지관 포함)	10.0	20.7	9.5	20.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4	12.0	1.0	8.8
장애인체육시설	2.2	21.0	2.2	15.9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8	14.6	0.4	18.3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1	17.0	2.3	24.0
점자도서관 *	0.3	7.1	0.2	7.3
수화통역센터 *	0.4	6.0	0.6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5.3	37.1	5.4	34.8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5	11.8	1.0	1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	12.4	0.4	10.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0.5	58.3	0.4	54.1
정신건강증진센터	0.8	15.9	1.9	12.4
장애인재활병·의원	1.8	36.1	2.5	31.0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	1.7	50.7	3.6	69.1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0.3	41.9	0.3	30.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8	45.4	0.8	37.0
발달장애인가정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0.4	43.2	-	-
특수교육지원센터	1.5	2.6	1.6	49.8
성인장애인교육시설	0.5	9.4	0.7	11.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0.4	12.7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	1.2	-	-
장애인단체	3.3	11.1	3.1	11.7

주: 이용률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이용 희망률에서 * 표시를 한 기관은 해당 장애 유형 외는 비해당 처리를 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6.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장애인의 일반적 복지 욕구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째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전체의

41.0%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은 의료보장으로 27.6%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이어서 고용보장(9.2%), 장애인 건강관리(6.0%), 주거보장(5.1%) 등이 장애인의 주요한 욕구로 파악되었다.

2014년 실태조사 등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표 12.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1순위)

(단위: %)

구분	2017년	2014년
소득보장	41.0	38.5
의료보장	27.6	32.8
고용보장	9.2	8.5
주거보장	5.1	6.4
이동권 보장	3.0	1.8
보육·교육 보장	1.2	1.7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1.4	1.6
장애인 인권보장	2.5	2.7
장애인 인식 개선	2.0	2.2
장애인 건강관리(장애 예방 포함)	6.0	1.2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참여 보장	0.5	0.6
재난안전 관리	0.3	0.5
기타	0.2	0.3
없음	0.0	1.3
계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로 전반적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욕구가 다른 욕구를 압도하는 기초를 유지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소득보장과 건강관리(장애 예방 포함) 및 고용보장 욕구가 2014년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욕구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전히 소득보장의 욕구가 월등히 높고 고용보장과 함께 직전 조사 때보다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목표인 자립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득 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 나가며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 기초하에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 인구와 소요 예산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현금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현물급여 이용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외한 급여 및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들 핵심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급여량)을 증가시켜 왔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것은 지적장애인지원센터,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약 경험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자,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가 신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따른 반작용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체장애인의 여가 및 이동 욕구가 반영된 장애인체육시설과 장애인특별 운송서비스 확대와 함께 그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의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국가에 장애인이 가장 우

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에서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욕구와 함께 의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장애 예방 포함), 주거보장 등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장애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욕구 등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착 등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데,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수준이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에 있으면서 지난 10년간 정체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지출 확대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 지출 비중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8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
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년 장애인 실태조사.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